

클래식 스타들의 노하우를 만나다

광주시향 '2022 마스터 클래스' 진행
25일 소프라노 박소영, 28일 테너 강요섭
2월 21~22일 지휘자 홍석원 참여
일반인 클래스 참가자도 무료 모집



지휘자 홍석원



테너 강요섭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 리 석사·최고연주자과정을 밟았다. 2019년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데뷔했으며 미국 제57회 그레미 어워드에서 최고 엔지니어 상과 최고 클래식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 클래스를 진행하는 강요섭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했고 2003년부터 도이체오페라 베를린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뉴욕, 비엔나, 파리, 뮌헨, 로마 등의 무대에 올랐으며 국립 오페라단, 서울시향, KBS교향악단과 협연했다.



'웃음꽃'

'세화전 희망의 노래'

안은하 개인전, 31일까지 LH휴량갤러리

'임인년에 만나는 세화.' 안은하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량갤러리에서 열린다. '2022 세화전 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임 작가는 꽃, 잎 등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은 경쾌한 색감과 해학이 돋보이는 '웃음꽃' 시리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업한 그림들이다. 목을 한껏 늘리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귀여운 느낌의 유쾌한 호랑이와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맥박을 짚는 토끼의 모습이 등장하며 알록달록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다채로운 꽃들은 화면에 경쾌하고 발랄한 생기를 더한다. '우리의 노래 작가전'을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안 작가는 남부위터컬러페스티벌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호남대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 청소년상담학회 회원이며 제1년 심리상담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소프라노 박소영

다. 특히 올해는 홍석원 광주시향 지휘자도 노하우를 전해줄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약 2시간~2시간30분 진행되며 연령, 지역에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각 분야 별로 영상심사를 거쳐 3~4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도 받는다. 지난해에는 손 씨의 강연을 시작으로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피아니스트 손민수 등의 마스터클래스가 진행됐다. 올해는 오는 25일 소프라노 박소영을 시작으로 28일 테너 강요섭, 2월 21~22일 홍석원 지휘자의 마스터클래스가 예정돼 있다. 첫 강연자인 소프라노 박소영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GSO 오티움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27일)에 출연하는 두 사람은 마스터클래스에서 발성법, 호흡법, 자세, 기교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두 분야 모두 지난 12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참가자 4명을 선정했다. 오는 2월 강연하는 홍석원 지휘자는 피아노 (21일)와 오케스트라 (22일) 두 분야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홍 지휘자는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한스 아이슬러 베를린 국립음악대학교 지휘과 디플롬 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티롤주립극장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휘자로 활동한 그는 독일 음악가협회 선정하는 10인의 미래의 마에스트로에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지휘 노하우와 음악적 해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과제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8단조 K.550' 전악장이며, 접수 마감은 21일까지다. 자세한 일정 및 참가자 정보는 광주시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동남아시아문학총서' 3종 출간

동남아시아 근현대문학관을 묶은 국내 최초 동남아시아문학 전집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 3종(사진)이 동시 출간됐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처음 동남아시아 근현대문학 출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첫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간된 3종은 베트남 소설 '영주' (2015), 인도네시아 소설 '판데르베이크호의 침몰' (1939), 태국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 (1929)이다. 베트남 국민 작가 도박투이의 '영주'는 드엉트영 지방의 영주(領主) '송주어'에 대한 전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베트남 산악지대 소수민족인 몬족의 문화와 관습, 역사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판데르베이크호의 침몰'은 인도네시아 국가 영웅 반열에 오른 작가 함카의 대표작으로 젊은 연인의 삶을 통해 미남카바우 지역의 부조리한 전통과 관례를 고발한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현대적 서양 문화를 경험한 왕족 작가가 아랫집강 라피앗이 집필한 태국 현대 소설의 시조가 되는 작품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억과 변화의 기록

'충장동의 시간을 걷다'
'계림동의 시간을 걷다'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작업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동네와 사람을 기억하는 '기록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인물 중심으로 동구 역사를 정리한 '동구의 인물 1·2', 동구 인문자원을 산책코스화 한 '동구 인문산책길', 마을 단위 역사와 삶을 기록한 '학동의 시간을 걷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동구의 계림동·충장동 풍경과 사람을 들여다본 책자가 나왔다.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작업' 일환으로 나온 '계림동의 시간을 걷다'와 '충장동의 시간을 걷다' (오월의 책 발간)다. 책은 과거의 추억을 소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현장도 담아내고 있다. '충장동의 시간을 걷다'는 일제 강점기 '본정동'이라는 불렀던 광주의 심장부 충장동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다. 오랫동안 광주의 핵심 상권이자 언론사, 문화기관 등이 밀집된 '광주의 얼굴' 충장동을 구석구석 살펴본 책으로 '충장동·금남로의 민주화 운동', '충장동 극장사'를 비롯해 은행, 다방, 도심폴리 등을 다뤘다. 또 궁전제과, 베토벤 음악감상실, 월계수 식당 등 오래된 가게들과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들의 이야기도 담겼다. 필진으로는 조광철(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위경혜(영상예술박사), 김인정(오월의 책 대표), 안미정(광주비엔날레 폴리부)씨 등이 참여했다. '계림동의 시간을 걷다'에서는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광주시청이 자리했던 광주 행정 중심지 계림동의 오랜 역사를 만난다. 지금은 사라진 경양방죽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계림동 나무전 거리, 광주교 학생들의 4·19 시위, 헌책방 거리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LP가게 명음사, 계림 나전칠기 전문점, 태화고무 등 오래된 가게들의 이야기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필진으로는 김형수(시인·신동엽문학관 사무국장), 전고필(문화기획자), 강동수(대목수)씨 등이 참여했다. 두 책 모두 옛날 동네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오래된 자료 사진들이 실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윤정 피아노 독주회

21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정윤정(사진) 피아노 독주회가 21일 오후 3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5번', 그리고 '서정 소곡집', 스트라우스 '5개의 피아노 소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5번'은 청년 베토벤의 싱그러움 활력을 담고 있어 '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서정 소곡집'은 그리그가 작곡한 66곡의 피아노 독주곡 모음집으로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은 그의 원숙미를 담고 있는 곡으로 깊은 서정성, 기교 등이 나타나 있다. 정윤정은 광주예술고와 경희대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뉴욕 맨하탄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M.M)를 취득했고, 미시간 주립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귀국 후 광주 피아노 아카데미 정기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10-7720-529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